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1. 기도의 공동체가 주는 위로

작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당시, 이 신종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이렇게 감염시킬 것이라고는 거의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리라고는 정말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6월 26일, 오전 10시)까지 확진자가 9,296,202 명이고 사망자는 무려 479,133 명이나 됩니다. 아니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겉으로는 말수가 적은 일본사람들이라 혼란한 상황은 느낄 수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확산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큰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일본의 대처가 훌륭하다고 자화자찬하는 정치가들의 꼴불견의 모습때문에 심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권력을 쥔 소수의 교만하고 고집불통의 언행을 볼 때 섬짓 섬짓하는 것은 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친 가장 큰 영향 중의 하나가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기독교는 이미 밑바닥이라 더 내려갈 곳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 내려갈 밑바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당혹스러운 현실입니다만, 이 신종 바이러스를 계기로 일본성도들이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폐쇄된 섬나라와 교묘한 민족주의의 굴레 가운데 이웃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의 자세가 결핍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피해상황을 보면서 조금씩이나마 일본열도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과 세계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일본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일본선교사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보기도는 초대교회의 특징이자 기독교의 독특한 자랑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이며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되며 성숙됩니다. 지금까지 일본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중보기도의 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족과 고작 자기 주위의 몇몇 사람만이 기도의 대상이요 범위였지만, 이제 그 대상과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일본인 성도들에게 기도에 관한 두 가지 격언(?)을 자주 소개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이신다」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경제대국을 이루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본인 신자들은 기도를 등한시하고 멸시해 왔습니다. 동시에 기도의 시간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하는 편이라 늘 사람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작게 생각해 왔던 일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본교회가 중보기도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누야마 교회에서도 수요 기도회 시간에 계속적으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래는 2020년 6월 17일 수요 기도회 때에 함께 기도한 기도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유 및 회복을 위한 기도제목

2020년 6월 17일(수요기도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2,3)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창 12 장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구절 가운데 하나이다. 구속의 드라마라고 불리우는 본장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넘어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 간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실현시켜 가신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소망을 두는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1)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딤후 3:1~4)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2) 세상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이다.

성경의 예언성취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전파에 있다.

2. 이누야마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해

1) 연로하신 형제자매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그 가족들,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형제자매들과 새신자들을 위해서.

2)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특히 가족구원을 위해서)

3)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행 18:10, 교회장기목표)를 위해

3.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와 사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확진자수:17,587 명, 사망자수:927 명, 6 월 16 일 현재)

- 1) 교회:주일예배를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2) 사회:각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마 5:13,14)
- 3) 나라:각가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살전 1:9)

4. 세계를 위해(확진자수:7,823,289 명, 사망자수:431,541 명, 6 월 16 일 현재)

- 1) 지난 주 1 주일간(확진자수:892,289 명 증가, 사망자수:30,684 명 증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소서
- 2) 가난한 자와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을 위해

』

『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対する治癒と回復のための祈禱課題

2020年6月17日(水曜祈禱会)

“わたしはあなたを大いなる国民にし／あなたを祝福し、あなたの名を高める／祝福の源となるように。あなたを祝福する人をわたしは祝福し／あなたを呪う者をわたしは呪う。地上の氏族はすべて／あなたによって祝福に入る。”(創世記 12 : 2~3)

聖書の主題は「神のお約束」で要約できるかもしれない。この点において、創世記 12 章は最も大切な聖書の箇所の一つである。「救いのドラマ」と呼ばれる本章は、「信仰の父」アブラハムを超えて未来への「神のお約束」に私たちの関心を集めて行く。最終的に、神様はメシアを通してその約束を実現して行かれる。私たちがコロナウイルスの脅威の中でも「神の救いの御業」に希望を置く大切な理由もここにある。

1.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向き合うために

- 1) 終わりの時には困難な時期が来る (Ⅱテモテ 3 : 1~4)。
「人々は自分自身を愛し、金銭を愛し、…神よりも快樂を愛し」
- 2) この世の希望はただ「キリストのみ」にある。
聖書の預言の成就とキリストの再臨への準備のために。
キリスト者の使命は福音宣教にある。

2. 犬山教会と兄弟姉妹のために

- 1) 高齢の兄弟姉妹・病と闘っている兄弟姉妹とその家族・いろんな問題の解決のために
祈っている兄弟姉妹・新来者のために。
- 2) 一人がひとり伝道する教会となるように(特に、家族の救いのために)。
- 3) 「この町には、わたしの民が大勢いる」(教会長期目標)のために。

3. 日本キリスト改革派教会と社会そして国のために

(**感染者数 : 17,587 名、死亡者数 : 927 名、6 月 16 日**)

- 1) 教会 : 主日の礼拝を守りながら積極的に福音を宣べ伝えられるように。
- 2) 社会 : 各教会が世の塩・光としての役割を果たせるように (マタイ 5 : 13~14)。
- 3) 国家 : 様々な偶像崇拜から神様に立ち帰られるように (I テサロニケ 1 : 9)。

4. **世界のために (感染者数 : 7,823,289 名、死亡者数 : 431,541 名、6 月 16 日)**

- 1) 先週一週間 (感染者数 : 892,289 名、死亡者数 : 30,684)
「神の憐れみと御力」によってコロナウイルスが終息されるように。
- 2) 貧しい人々を始め、助けを求めている人々のために。

』

2. Text(본문, 내용)와 Context(배경, 환경)

바울은 그리스 신화를 중심으로 한 다신교적 이원론적 사상을 가진 헬라문화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히브리적 문화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이런 두 민족, 두 사상, 두 문화의 차이점을 분별하면서 바울은 헬라세계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유순한 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전달방법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되지만, 그 전달방법을 데살로니가인에게 맞추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또한 Text(본문, 내용)와 Context(배경, 환경)와의 관계를 깊이 고려해야만 합니다. 만일 설교시 표정이나 용어선택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설교내용이 일본인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와 두 민족의 미묘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와 기도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 한국인 선교사들은 무엇보다 Text와 Context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는 선교사의 힘의 원동력입니다.

1. 이누야마교회는 주일예배(오전, 오후)와 수요 기도회 함께 7 월부터 주중 모임도 조금씩 회복시킵니다. 매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2. 믿음·소망·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3. 주은:여름방학을 통해 새로운 학기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주향:교회 봉사에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4. 후원금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지게 하소서
5. 우리 부부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2020 년 7 월 1 일

일본 이누야마(犬山)에서
김기태/김혜금(주은, 주향) 드림